

- 주요 뉴스: 11월 FOMC 의사록, 다수의 위원은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적절하다고 판단
 - 미국 11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예상치 상회. 양호한 노동시장 여건은 지속
 - 유로존 11월 S&P 글로벌 종합 PMI, 전월비 상승. 경기침체 우려 완화
 -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추가 금리인상 요구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통화긴축 완화 기대 증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6%], 달러화 약세[-1.0%], 금리 하락[-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매수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여행, 레저 및 소매업 관련주 강세 등으로 0.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9%, 1.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2월 FOMC에서의 0.50%p 인상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5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337.2원, -14.7원) 1.1% 하락, 한국 CDS 하락

주요지수					주요지수				
		11/23일	11/22일	전일대비			11/23일	11/2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27.3	4,003.6	0.59%	국채금리 10y	미국	3.69%	3.76%	-7bp
	유럽	438.82	436.22	0.60%		독일	1.93%	1.98%	-5bp
	중국	3,096.9	3,088.9	0.26%		영국	3.01%	3.14%	-13bp
	일본	휴장	28,116	-	CDS 5y	한국	52bp	53bp	-1bp
	한국	2,418.0	2,405.3	0.53%		중국	77bp	81bp	-4bp
환율	달러지수	106.12	107.22	-1.02%	위험지표	EMBI+	-	404	-
	유로화	1.0397	1.0304	0.90%		VIX	20.40	21.29	-4.18%
	엔화	139.51	141.23	1.23%		WTI유	77.94	80.95	-3.72%
	위안화	7.1605	7.1399	-0.29%	원자재	구리	364.3	361.5	0.79%
	원화	1,351.8	1,356.6	0.36%		금	1,749.8	1,740.3	0.5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11월 FOMC 의사록, 다수의 위원은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적절하다고 판단

-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조만간 적절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연준이 12월 FOMC에서 0.50%p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
- 아울러 여러 위원들은 연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최종금리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이번 결과는 시장에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면서 주가 상승(S&P500 4,027.3 +0.59%), 국채금리 하락(2Y 4.48% -4bp, 10Y 3.69% -7bp), 달러화 약세(106.12, -1.02%)등이 발생
- 한편 위원들은 통화긴축이 인플레이션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 특히 지금까지의 긴축 노력이 고용과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
- 아울러 일부 위원은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이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언급. 또한 통화긴축 속도를 늦추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 CME의 FedWatch Tool에 따르면, 12월 0.50%p 인상 가능성은 80.6%. 이후 내년 2월과 3월(또는 5월)에 각각 0.50%p, 0.25%p 인상되어 최종금리(5.00%~5.25%)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 시장에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 가능했다고 평가(Wedbush Securities의 Michael James)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1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예상치 상회. 양호한 노동시장 여건은 지속

- 11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4만건으로 전주 대비 1.7만건 증가. 이는 예상치(22.5만건) 대비 높은 수준이나 노동시장은 여전히 수요 우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해고에 소극적(Citigroup)
- 한편 10월 내구재 수주는 전월비 1.0% 늘어 전월(0.3%) 및 예상치(0.4%) 대비 양호한 것으로 확인. 금리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로 인식되는 항공부문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는 전월비 0.7% 증가

■ ECB 부총재, 경기침체 위험 불구 금리인상 지속할 필요

- 데 쿤도스 부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2%)에 근접할 때까지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향후 수개월 간 물가상승률이 10%대를 상회할 수 있기에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소평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

■ 유로존 11월 S&P 글로벌 종합 PMI, 전월비 상승. 경기침체 우려 완화

- 11월 S&P 글로벌 종합 PMI는 47.8을 기록하여 전월(47.3) 대비 개선. 이번 결과로 향후 도래할 수 있는 유로존 경기침체는 당초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 증가.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46.4)도 예상(44.9)보다 양호
- 다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세부항목 가운데 서비스 고용, 신규 수주 등이 부진하여 향후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 아울러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과 공급 차질 등도 지속

■ 독일 중앙은행, 내년에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 가능

- 정기 월보에서 당국의 에너지 가격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 최근 가스가격 하락의 효과가 당장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 또한 가스가격 하락이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

■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추가 금리인상 요구

-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최근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은 에너지 가격 및 임금의 상승이라고 분석

■ 중국 인민은행 통화위원, 내년 성장률은 5%를 상회할 전망

- 왕 이밍 위원은 코로나 19 봉쇄조치 완화, 부동산 경기 안정, 당국의 경기부양 노력 등으로 내년 성장률이 최소한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여력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고려 시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2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S&P 글로벌 종합 PMI: 46.3, 10월(48.2), 예상치(47.7)
- 미국 10월 신규주택 판매(만건): 63.2, 9월(58.8), 예상치(57.0)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신흥국, 긴축적 금융여건을 비교적 양호하게 극복 중 - Financial Times

(Emerging markets ride out the financial squeeze)

- 과거에는 미국 달러화 강세와 글로벌 유동성 위축 국면에서 신흥국 불안이 크게 고조. 그러나 최근에는 1년여 동안 금융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금융시장이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지속
-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거 위험회피 국면에서처럼 신흥국 자산을 대거 매도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 스프레드 급등도 터키나 일부 동유럽 국가에 국한. 아시아 통화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기 국면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
-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와 함께 최종 정책금리 수준도 정점에 근접. 이는 신흥국들이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융안정 목표를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

■ 미국 경제, 유가 하락의 의미가 이전과는 다를 가능성 - 블룸버그

(Oil Prices Are Breaking an Old Recession Tradition)

- 과거 경기침체 우려가 증폭되면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발생. 반면 금년에는 6월 이후 유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 경제성장은 양호한 모습. 3/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향상되었고 4/4분기 역시 긍정적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유가 하락이 경기침체 우려가 반영된 측면도 있으나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크기 때문. 또한,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에 따른 수요 둔화 등도 영향
- 한편 이번 유가 하락은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이어져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 또한 제조업 비중 감소로 유가 등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이전보다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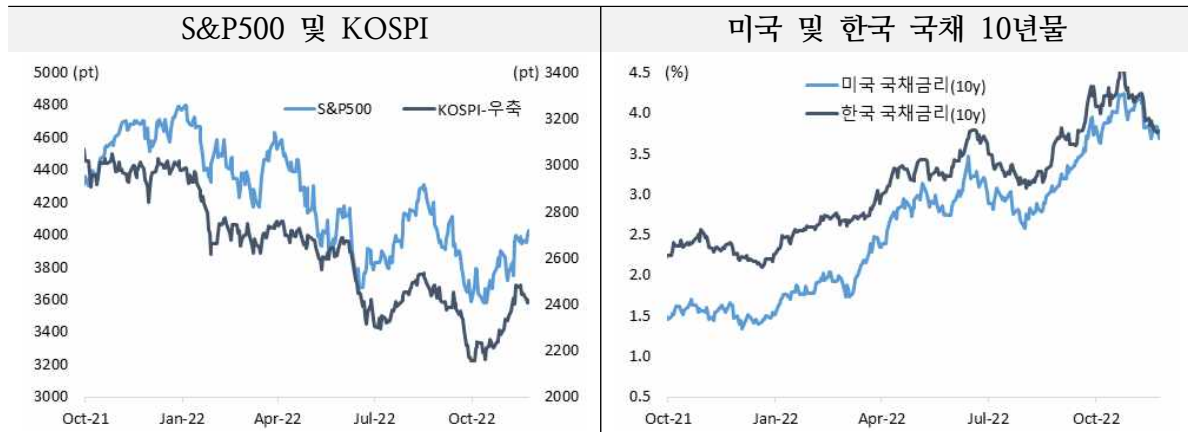
■ 미국 LBO(차입매수) 시장, 최근 리스크 완화로 투자 유인 증가 - Financial Times

(US credit markets: autumn thaw gives LBO lenders some relief)

- 지금까지 대형 은행들은 높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LBO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들어 노동시장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도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LBO 투자 여건이 호전
- 특히 정책금리 인상과 신용 스프레드 확대의 영향으로 수익률이 수년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해 있어 고금리 채권 투자 유인이 큰 상황. 다만, 아직까지는 거래가 활발한 단계는 아니며 현재까지 성사된 거래는 모두 매입자 우대조항을 포함

- **글로벌 경제, 내년에 성장 둔화 예상되나 당초 우려보다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 - WSI**
(Global Economy Slows, but Seems to Be Faring Better Than Feared)
 - 금년 고물가와 금리인상에도 글로벌 경기둔화는 예상보다 제한적. 이에 내년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해도 경미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미국의 경우 견조한 노동시장 및 가계 소비 등으로 금년 말까지 성장을 이어갈 전망
 - 또한 유럽은 에너지 위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당초 전망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 긍정적. 중국은 코로나 봉쇄조치 완화 등으로 내년 경제성장을 예상
 - 다만 내년 경제 여건이 악화될 위험도 증가. 미국의 서비스 및 제조업 활동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흥국은 선진국의 고물가 대응 및 성장둔화 등에 직면. 중국의 경우 최근 코로나 감염 재확산으로 완전한 경제활동 재개 시기가 불투명
- **유럽의 은행 자본 규제 강화,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할 우려 - Financial Times**
(The state might be encroaching too far on European banks)
- **중국, 재정적자 해결은 부유세 부과 보다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적절 - 블룸버그**
(Is a Wealth Tax Xi's Answer to Fill China's Empty Coffers?)
- **영국 쌍둥이 적자, 심화 가능성은 낮은 편. 다만 성장 둔화 가능성 내재 - 블룸버그**
(Twin Deficits. Two Reasons to Relax, Two Worrie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